



사랑을 품은 호스피스

박종승 목사

(평택호스피스 대표, 한호협 경기남부지회장)

호스피스의 뜻을 백과사전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돕기 위해 세워진 시설이나 병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병에 든 사람이건 지금 건강한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 곁에 호스피스가 필요합니다. 로켓트를 타고 달나라를 왕복하지만 바로 내 집 옆에 누가 사는지 얼굴조차 모릅니다. 이제는 편지를 보내는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편지를 받는 일도 없으니 보낼 일도 없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그리고 간단한 핸드폰 통화는 매일 일상적인 대화이지만 마음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깊이 사랑이 묻어나는 대화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치병을 고친다는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기적처럼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생명사랑을 전하는 각 지역의 호스피스가 있어서 고통 받는 환우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웃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더욱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중환자들 옆에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간호하시는 호스피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라는 무명의 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은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함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 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